

‘낭만이 평평’ ... ‘여수밤바다 불꽃축제’

7일 이순신광장, 장군도 해상 일원 차별화된 불꽃·다채로운 공연 선사 대형 스크린·SNS 현장 생중계 진행 시, 셔틀버스 운행 교통불편 최소화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여수밤바다 불꽃축제’가 다음달 7일 이순신광장과 장군도 해상 일원에서 펼쳐진다.

1일 여수시에 따르면 낭만 가득한 여수밤바다를 배경으로 한 불꽃 축제는 차별화된 불꽃과 다채로운 공연을 볼 수 있는 축제로 관광객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특히 ‘여수와 사랑에 빠지다! (Fall in love with Yeosu!)’라는 주제를 드라마틱하게 표현하고자 축제에 타워크레인 불꽃과 동백꽃 모형 불꽃 등을 새롭게 도입한다.

불꽃축제는 7일 오후 7시 이순신광장과 해양공원, 진두 물양장에서 아가펠라와 LED 난타 공연, 낭만 버스킹으로 막을 연다. 이어 8시10분께 이순신광장 주 무대에서 내빈과 관광객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진행한다.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불꽃쇼는 8시 30분부터 9시10분까지 1, 2부로 나눠 40분간 펼쳐진다.

1부 불꽃은 15분간 4막에 걸쳐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도시 여수를 표현한다. 2부 불꽃은 25분간 5막으로 사랑에 빠진 연인의 감정을 묘사한다.

현장에서는 캐릭터, 볼케이노, 꽃다발, 오토라, 분수, UFO, LOVE 등 다양한 모



지난해 여수시 이순신광장 앞 해상에서 펼쳐진 ‘여수밤바다 불꽃축제’.

여수시 제공

양의 불꽃을 만날 수 있다. 컬러 레이저, 특수조명, 불새, 음악, 내레이션 등은 공중에 피어오른 불꽃에 입체감을 더해 주는 축제의 묘미를 살려줄 것으로 전망된다.

해마다 불꽃축제때마다 교통 정체 등 시민불편이 컸다. 특히 축제가 끝나고 차량이 한꺼번에 여수 구도심을 빠져나가면서 도로로는 수시간 동안 차량이 가다 서다를 반복, 관광객의 불만이 쇄도한 점을 감안, 여

수시가 올해 축제 때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우선 시는 무료 셔틀버스 11대를 운영하고, 차량 3천800여대를 수용할 수 있는 임시 주차장 11개소도 마련한다. 셔틀버스를 가동해 많은 차량이 축제장 부근에 몰리는 현상을 막아보겠다는 취지다. 구 여천권 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소호 요트장에 대형 스크린 차량을 배치하고, SNS 현장 생중계도

진행한다.

여수경찰서, 여수해양경찰서, 여수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광객 안전도 도모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불꽃축제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면서 “2019 여수밤바다 불꽃축제에서 잊지 못한 감동과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영수기자 kms3066@srb.co.kr

구례군, ‘그레, 구례여행’ 리플릿 제작 배포

관광객 취향에 따라 코스 추천 계절·축제 소개, 먹거리 정보도



구례군이 관내 여행코스를 안내하는 리플릿을 새롭게 제작해 관광홍보에 나섰다.

‘그레, 구례여행’이라는 표제로 제작된 이번 리플릿은 구례지역 여행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여행안내도와 관광명소의 정보를 보기 쉽게 요약해 사진과 함께 실었다.

또 삼대삼미(三大三美)의 구례지역 여행지를 관광객의 취향에 따라 골라 다닐 수 있도록 다양한 여행코스를 짜서 소개했다.

당일과 1박2일, 2박3일 등 일정별 기본 여행코스를 비롯해 힐링, 역사문화, 낭만, 체험 여행 등 테마별로 여행 추천코스를 수록했다.

삼화삼색(三花三色) 불꽃 여행 등 계절별, 축제별 여행코스도 소개해 사시사철 구

례를 여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코스별 여행지에 대해서는 간추린 설명을 곁들여 추천코스의 이해를 높였다. 리플릿 후미에는 지리산권과 섬진강권별로 구례 먹거리와 농특산물 정보도 담았다. 구례군은 이번에 제작한 리플릿을 관광안내소와 고속도로휴게소,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관련기관단체 등에 배포한다. 관내 음식점이나 숙박업소에도 비치해 업주나 관광객이 쉽게 여행지를 안내하고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례=오인석기자 gunguck@srb.co.kr

광양매화축제, 빅데이터 축제대상 ‘최고인기 대상’

광양시는 ‘2019 대한민국 빅데이터 축제대상’에서 광양매화축제가 최고인기 대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부상으로 5천만원 상당의 ‘KT BigSight Trip’ 이용권을 받았다.

대한민국 빅데이터 축제대상은 매일경제, 세계축제협회(IFEA) 한국지부, 고려대학교 빅데이터융합사업단, KT, BC카드, 다음소프트가 공동으로 빅데이터를 기

반으로 시상하는 국내 최초 빅데이터 축제 시상식이다.

이번 축제대상 선정은 전국 지자체에서 개최된 1291개 축제를 평가대상으로 KT의 유동인구 기반 휴대전화 빅데이터와 BC카드의 카드소비 데이터 분석, 다음데이터의 SNS 버즈량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광양=이승찬기자 isc6100@srb.co.kr



장성 황룡강에 대규모 테마 정원 조성된다

10월1일 노란꽃잔치 맞춰 준비 1.4km, 50분간 걷는 기쁨 두배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강’이라는 애칭을 얻은 장성 황룡강이 걷는 기쁨을 두 배로 안겨 줄 3가지 테마를 품은 대규모 정원으로 변신한다.

장성군은 오는 10월1일 ‘가고 싶은 열로우시티! 걷고 싶은 황룡강!’을 슬로건으로 열리는 ‘황룡강 노란꽃잔치’ 개막에 맞춰 황룡강 일대에 ‘컬러’, ‘이야기’, ‘빛’ 등 3가지 테마의 대규모 정원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황룡강변에 대규모로 심은 황화코스모스와 백일홍, 핑크몰리가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끈 가운데 올해 조성 예정인 3가지 테마공원에도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테마 ‘컬러’(color)는 제2황룡교부터 서삼교까지 이어지는 ‘오색정원’에서 펼

쳐진다. 핑크몰리 정원과 백일홍, 메밀꽃 정원 코스모스 정원 등이 조성된다.

서삼교에는 장미터널과 꽃 조형물이 설치되고, 인근 황룡시장에서는 관광객들을 위한 페스티벌도 열린다. 1.4km의 정원을 전체 둘러보는 데 약 50분이 소요될 예정이다.

황룡정원은 ‘이야기’(story)를 테마로 꾸민다. 서삼교부터 장안대교까지 약 1km 구간이 조성된다.

엘로우핑크 정원과 포인트 가든, 드레스가든과 포토조형물이 설치되고, 황룡강 위에는 아쿠아가든을 조성해 운치를 더한다. 여기에 영무새 체험관과 화훼 체험장 등 다양한 체험거리도 더한다.

‘빛’(light)을 주제로 한 ‘태양정원’은 장안대교에서 황미르랜드까지 약 0.8km 구간을 해바라기·연꽃·수수·조꽃 정원 등으로 꾸민다.

장성=최용주기자 young671221@srb.co.kr

곡성 동악산 ‘명품 숲길’ 탄생, 등산객 유혹



곡성군 동악산 명품 숲길이 다양한 매력으로 전국의 등산객을 유혹하고 있다.

1일 곡성군에 따르면 곡성은 월봉리에 위치하고 있는 동악산은 평소 산을 즐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지만 전국 100대 명산에 여럿하게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 곳이다.

도립사에서 시작해 동악산 정상만을 찍고 내려오는 한나절 코스에서 전문 산악인이라야 도전할 수 있는 삼인봉에서 초악산까지 20km에 육박하는 중주코스도 있다.

곡성군은 이 중 ‘도립사~동악산~배넘이재~형제봉~오토캠핑장’으로 연결되는 코스 약 13.6km 구간을 동악산 ‘명품 숲길’로 재탄생시켰다.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된 동악산 명품 숲길 조성 사업에는 37억원이 투입됐다. 크게 도립사~동악산 공구, 오토캠핑장~형제봉 공구, 네트어드벤처 공구 등 총 3개 공구로 구분해 진행했으며, 그 중 핵심시설은 도립사~동악산 공구에 조성한 ‘하늘정원’이다.

도립사~오토캠핑장 13.6km 조성 ‘하늘정원’ 구간 으뜸...다양한 매력

도립사 계곡을 따라 조성한 등산로를 가면 동악산 대표 수종인 소나무가 뻗뻗하다. 소나무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톤치드는 계곡물 소리와 함께 한여름에도 상쾌함을 선사한다. 등산로를 따라 약 3km를 더 오르면 동악산 명품 숲길의 핵심인 하늘정원이 펼쳐진다. 하늘정원은 배넘이재를 포함해 약 2.5ha에 달한다.

산행으로 지친 몸을 쉬어가기 좋지만 산수국이 피는 8월, 꽃무릇이 피는 10월이 가장 좋다. 곡성=김성주기자 injony@srb.co.kr

장흥, 국가중요농업유산 ‘청태전’ 표준화 품질관리 기준 마련...전통 발효차 소비자 신뢰 확보

장흥군이 국가중요농업유산인 ‘청태전’의 품질 표준화를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에 나서기로 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흥군은 최근 군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2호로 지정된 ‘청태전’ 품질 평가를 개최했다. 품평회에는 청태전 제다업체, 품질평가 심사위원을 비롯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장흥군은 품질 평가를 통해 청태전의 안정적인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방침이다.

청태전의 품질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야별 차 전문가와 지역 다회(茶會) 임원 등 12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 심사위원들은 외형, 맛, 향, 향기, 우린 잎 등의 관능검사와 열수추출물 시음 결과를 토대로 평가를 실시했다.

장흥군은 청태전의 명확한 품평 기준 확립과 농업유산으로서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이번 품질 평가 결과를 활용할 예정이다.

청태전은 구멍 뚫린 동전과 같은 모양으로 빛이 발효시키는 전통 발효차다.

장흥군은 2007년부터 지역 청태전 제다업체와 손을 잡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상품화에 성공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하는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2호로 지정돼 국가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권청자 전국 차 생산자협회장은 “청태전은 장흥만의 특별하고, 차별화된 소중한 농업유산”이라며 “청태전 품질 고급화와 표준화를 통해 세계적인 명차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흥=김영훈기자 hur5101@srb.co.kr

화순군,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캠페인

화순군은 지난 28일 청사에서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청렴 화순 만들기’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최형열 부군수, 노조 임원 20여명은 실·과·소를 돌며 “추석을 맞아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다 함께 참여합시다”라는 유인물을 공직자들에게 전달했다.

최 부군수는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군민들에게 더욱더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함께 만들자”며 동참을 당부했다.

청렴 캠페인은 지난 2012년 설을 앞두고 진행된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으로 시작했다. 이번 캠페인은 열다섯 번째로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

그동안 화순군은 지속적인 청렴 교육과 친절 교육, 공직 감찰 등을 통해 청렴 화순 구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순=추교윤기자 sh0434@srb.co.kr

아픈 이웃 위해 대신 농사 ‘훈훈’

보성 살내마을 주민들, 잡초 뽑고 논물 관리

보성군 미력면 살내마을 주민들이 몸이 아픈 이웃의 농경지를 대신 돌보며 훈훈한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어나가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1일 보성군에 따르면 살내마을에 사는 박모(68)씨는 지난 4월 뇌경색으로 쓰러져 광주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 이 상황을 안다깝게 여긴 이웃 주민들은 홀로 사는 박씨가 마을을 떠나자 투병에 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가 짓던 6천500평(2만㎡) 규모의 농지를 공동관리하기 시작했다.

문기정 이장을 중심으로 논물관리, 농약살포, 예초작업 등 추수를 앞둔 박 씨의 농지를 정성껏 관리해 오고 있다. 주민들은 교대로 박씨의 논물을 관리하거나 농약을 살포하고 잡초를 뽑는 등 추수를 앞두고 정성스럽게 관리하고 있다.

박씨는 마을에서 총무 일을 하며 낫은일을 마다하지 않는 등 주민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을 최고령자인 문복주(89)씨도 예초기로 잡초 베기에 동참했다.

문씨는 “정을 함께 나누는 미풍양속을 지켜나가는 주민 모두에게 고맙게 생각한다”며 “수확을 할 때까지 박씨가 완쾌하지 못하면 일손을 나눠 끝까지 도울 생각이다”고 말했다.

보성=정성민기자 jimin1@srb.co.kr

순천시, 아열대과수 재배단지 확대 조성

‘백향과’ 신 소득모델 급부상...농촌 체면도 마련

순천시가 확대 조성하고 있는 아열대과수(백향과) 재배 시범 단지가 농가의 새로운 소득작물로 뜨고 있다.

1일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대응의 일환으로 새로운 아열대과수 작물 보급에 나서면서, 재배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지난해 외서면 농가를 시작으로, 올해는 낙안면에서 아열대과수 재배단지 조성에 한창이다.

순천시는 올해 국비 공모사업으로 0.5ha를 조성 중이다. 오는 2020년까지 1ha 조성이 목표다. 낙안읍성 권역과 순천만국가정원 권역의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농촌 체험프로그램을 통한 생산, 판매, 체험문화 확산으로 6차산업화의 선진 모델을 구현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백향과 성공을 시작으로 아열대과수에 관심있는 농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해 나갈 계획이다”며 “아열대과물이 신소득 창출과 함께 아열대과수 6차산업화의 새로운 관광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천=김학선기자 balaboda2@srb.co.kr